가트너 제팬, 제1/4분기 세계 휴대전화 판매 대수는 호조

가트너제팬 데이터 퀘스트 부문은 제 1/4분기(1~3월) 세계 휴대전화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비 18% 증가한 1억 1,270만 대였다고 지난 6월 2일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메이커별 쉐어로는 노키아가 35%로 여전히 압도적인 쉐어를 획득하고 있다.

동사는 유럽 및 아시아 퍼시픽 GSM 시장의 50% 가까운 쉐어를 얻고 있으며, 가트너에서는 제2/4분기 이후에도 동지역으로 한층 더 쉐어를 늘린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 가트너에서는 쉐어 14.7%로 2위가 된 모토로라와 계속되는 3위의 삼성(10.5%)은 제2/4분기 이후에 2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4위 지멘스(7.6%)와 5위 소니 · 에릭슨(4.8%)과 LG와의 사이에 쉐어 획득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밝혔다.

덧붙여 삼성, LG의 한국 휴대전화 메이커 2사는 CDMA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세계 GSM 시장에서도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 일본 국내 메이커에서는 파나소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7위, NEC가 8위이다.

가트너에서는, 향후 유럽 등의 시장에 있어 칼라 액정 탑재기나 카메라 부착 단말이 다수 투입되어 교체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이나 음악,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에 대응한 단말이 릴리스되어 2003년의 세계의 휴대전화 시장은 「단말 다양화의 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 대수 베이스에서는 이러한 고기능 단말은 아니고 엔트리 유저용의 단말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 가트너 데이터퀘스트 부문의 주석 어널리스트 미츠야마 나오코씨는 「해외에서 카메라 부착 단말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으로 일본 메이커가 해외시장에서 판매 대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카메라 부착 단말은 중위 유저 이상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기능 단말로 쉐어를 획득하지 않으면 일본 메이커가 세계 시장에서 쉐어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트너에서는, 중국에서 단말 재고가 확대하고 있는 점이나, 아시아 등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스(SARS)를 예로 들어 2003년의 연중 실적에 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말 메이커가 ODM 메이커도 포함해 세계에서 100사 이상 존재하고 있어, 가격 경쟁으로 수습해 버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 URL- http://www.gartner.co.jp/press/pr20030603-01.html

노키아, 2005년 세계 휴대 전화 유저수 16억명 전망

노키아는 지난 6월 11일 4억 500만대 규모였던 2002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이 올해에는 10% 정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2005년 말의 휴대전화 유저수는 1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상위 기종으로부터 하위 기종까지 폭넓게 카메라 부착 단말이 사용돼 이 시장의 확대를 예상했다.

노키아는 이런 전망 이외에도 6월에 W-CDMA/GSM 듀얼 모드 단말 「Nokia 6650」의 본격 출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W-CDMA 네트워크 기지국 분야에서도 30%의 쉐어를 35%까지 상승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CDMA 2000 1x 관련 제품 투입을 유지하면서 2/4분기 중에 쉐어 확대를 꾀하는 것 외에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 초 17 종류의 신단말을 투입한 북미 시장의 쉐어 확대와 더불어, 특히 중국에서는 CDMA 단말을 금년 후반부터 판매한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 URL- http://press.nokia.com/PR/200306/907157_5.html

핸드스프링, 풀 키보드 탑재 소형 스마트 폰 「Treo 600」 발매

미국의 핸드 스프링사는 QWERTY 배열의 풀 키보드를 탑재하고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 슬롯까지 장착한 스마트 폰 단말 「Treo 600」을 이번 가을에 발매한다.

「Treo 600」은 QWERTY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하면서 휴대전화 사이즈의 소형화를 실현한 스마트 폰으로, OS는 Palm OS 5이며, ARM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SD/MMC 카드 슬롯을 장비 하고 있는 것 외에 JavaScript를 서포트하는 새로운 브라우저도 탑재하고 있다. 한 손 조작이 가능해, 배터리도 개선된다고 동사는 밝혔다.

■ URL- http://www.handspring.com/treo600/

IDC 제팬, 2007년 3G 전체 시장 81.4% 차지

IDC 제팬은 일본의 제3세대 휴대전화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리포트는 향후 일본 시장에 있어서의 3G 서비스의 성장을 예측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07년 휴대전화 마켓은 8,890만 대에 이를 것이며, 매상 금액 수는 7조 8,654억엔이

된다고 한다. 동사에서는, 이 중 CDMA2000 1x 방식 및 W-CDMA 방식에 의한 3G서비스는 계약 수가 6,900만 대, 매상고가 6조 4,032억엔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유저가 본격적으로 3G서비스로의 이행을 개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au가 PDC 방식을 폐지하거나 NTT 도코모가 505 i시리즈 이후에 FOMA에 주력 하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2003년 후반부터 2004년으로 보고 있다.

또 동리포트에서는 2007년에는 보다 고속의 통신이 저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3G서비스에 의해, ARPU의 26%가 데이터 통신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덴츠 종합연구소, 휴대전화는 개인 재산으로부터 가정의 재산에

덴츠 종합연구소는 지출 금액 등에서 일반소비자의 정보 미디어에 대한 동향을 정리한 리포트 「i-Life : 정보화 사회에 산다」의 2003년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잡지, 브로드 밴드 외 휴대전화에 관한 소비자의 동향이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동사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발표된 리포트는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현상에 있어서의 일반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5세~59세의 남녀이며, 유효 회답수는 714명, 남녀비는 5:5%, 조사 시기는 2002년 12월 초순이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정보 미디어에의 소양이나 대응 능력이라고 정의된 '정보 리터러시'에 대해 각 유저가 어느 레벨에 위치할까를 조사해 상위로부터 'HH층', 'HM층', 'MM층', 'L층'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관한 항목에서는 단말로부터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비율은 전체 65.4%이며, 이 중 PC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만으로 액세스 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42.6%, 양쪽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은 3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L층에서는 그 반수가 휴대폰으로부터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휴대전화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 있다고 맑혔다. 상위층으로 갈수록, 양쪽 모두 이용하고 있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리포트에서는 '기능적으로 어중간한 인터넷 사회가 정착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유저의 수입으로부터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층에서도 휴대전화가 지출액수의 1위를 차지했다. 또 지출의 내역을 개인의 '용돈'이 아닌 가계 지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가족 할인 서비스 보급 등의 영향도 있지만, 휴대전화가 개인의 재산으로부터 가정의 재산에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0대의 유저 층에서는, 휴대전화 지출이 용돈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정보 미디어에 지불하는 총액 중 3할에 달하고 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가 차지하는 지출액의 비

율은 저하하고 있지만, 동리포트에서는 '젊은층의 소비 활동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존재는 크며, 쓸데없는 소비를 피하는 마인드가 생겨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가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NTT 도코모, 4G투입 2010년 예상

NTT 도코모 미국 법인의 오노 신지 사장은 지난 6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CeBIT America에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일본의 제3세대(3G) 휴대전화는 네트워크 확대와 질 향상을 통해 이용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노씨에 의하면, NTT 도코모는 2001년에 일본에서 3G 휴대전화를 도입한 후, 2002년 1월 5만명이었던 3G가입자가 올해 1월에는 15만명, 5월말까지는 35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단말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금년에 해소되었다. 올해 3월 현재 커버율은 91%에 이르렀으며, 배터리 지속 시간은 200시간을 넘었다. 3G 휴대전화의 가격과 중량도 2G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오노씨는 강연 후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NTT 도코모의 3G 서비스 흑자화까지는 3년, 도입 경비의 채산이 잡히게 되기까지는 5년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4G는 아마 7년 이내, 2010년 즈음에는 제공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TT 도코모, TV전화기능을 표준 탑재한 FOMA 단말 3기종 발표

NTT 도코모는 지난 6월 16일, 폴더 타입의 FOMA 단말 「F2102V」「N2102V」 및 PC카드 타입의 「F2402」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3기종 모두 'TV전화기능' 을 탑재했다.

시장 투입 시기는 미정이며 오픈 가격으로, 실매 예상 가격은 F2102V와 N2102V가 3만엔 정도, F2402가 2만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F2102V 및 N2102V에서는, i모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종래의 음성 코덱 'AMR(Adaptive MultiRate)' 에 가세해 음향 코덱 'AAC(Advanced Audio Coding)' 를 추가했으며, 비압축의 CD오디오의 음질을 실현하고 있다. 또 비지니스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인증 기능 '클라이언트 인증 기능' 을 탑재했다.

F2102V는 유효 화소수 약 33만 화소 및 유효 화소수 약 11만 화소의 CCD 트윈 카메라를 탑

재했으며, 안쪽과 외측에 카메라의 보조빛으로서 라이트를 장착하고 있다. 또 듀얼 사운드 스피커를 내장한 것 외에도 miniSD 메모리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연속 대기 시간은 약 240시간(정지시 약 310시간).

N2102V는 FOMA 단말 중 최소로, 약 98 cc(약 104×50×25밀리)를 실현했다. 정지화면에 음성을 합성해 메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픽쳐 음성 기능'을 탑재한 것 외에도 OCR 독해 기능과 카메라로 촬영한 문자를 읽어내 Web 액세스나 메일로 송신할 수 있는 '액세스 리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연속 대기 시간은 약 200시간(정지시 약 270시간)이다.

F2402는 PC카드 타입 단말로 PC에 이어 폰 마이크, USB 카메라를 접속, TV전화를 즐길 수 있다. 또 '스윗치부 이어 폰 마이크 P002'라는 유틸리티 소프트에 의해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

authentic, 휴대폰 액정 스피커 기술 발표

authentic사는 지난 7월 3일, 휴대전화 액정 디스플레이에 음성을 발생하는 스피커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착신 멜로디의 재생외, 통화용 스피커로도 이용할 수 있어 통화시 귀와 스피커의 위치를 신경쓸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귀로부터 떼어 놓아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시스템은 2 인치의 액정 패널에 장착하는 것으로, 장착하는 모듈 자체는 두께 4밀리, 폭 40밀리로, 휴대전화가 두꺼워지는 등의 영향은 없다고 한다.

상품은 모두 커스텀화 되어 휴대전화외에도 PDA나 휴대형 게임기, 카네비게이션, ATM, 자동 판매기 등에 채용을 목표로 한다.

제품 모두 커스텀화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과제는 코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동사는 밝혔다.

소니 · 에릭슨, 북미 CDMA 단말 생산 중단

소니 · 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북미에서의 CDMA 단말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GSM 단말로 전환할 예정.

동사에서는 해외 겨냥으로 CDMA나 GSM에 대응한 단말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근년 북미에서의 GSM 시장이 확대했기 때문에 사업 자원을 GSM, UMTS 등에 집중한다고 한다. 이에 맞추어 독일 뮌헨에 있는 GSM의 연구 시설이 폐쇄되는 등, GSM/UMTS의 연구개발 시설의 효율화도 도모해 간다는 전략이다.